

2010년대 북한 중앙음악단체의 민족악기 편성 양상*

배인교**

[국문초록]

이 글은 남한과 북한이 반세기 이상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음악 연주 형태 중 현재 중앙에서 활동하는 음악단체들의 민족악기 편성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은하수관현악단의 2011년 2월과 2012년 3월의 파리공연, 그리고 민족관현악과 부분배합편성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2013년의 4월과 9월 공연,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세습이후 2012년에 창단된 모란봉악단의 2014년 9월 <신작음악회>를 살펴보았다.

은하수관현악단은 전면배합관현악편성으로 연주하였으며, 양악기와 민족음악연주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연주기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역시 전면배합관현악편성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은하수관현악단의 것과 민족악기의 위치가 달랐다.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공연에서는 이 외에 소규모의 민족관현악편성과 배합편성이 있었는데 모두 아코디언을 넣어 화성을 표현하였으며, 민족죽관악기와 하모니카를 결합하여 화성이 표현되면서도 민족적인 흥취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음악 악단인 모란봉악단이 연주하는 민요풍의 노래에서 전자악기로 형상하는 민요의 음조도 그렇지만 전자악기에 팽과리를 편성하여 민족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민족적 형식에 현대적미감과 인민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배합편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민족음악에서 화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민족적 형식과 현대적 미감, 그리고 인민성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리며 향후 지속적으로 중앙 음악단체는 악기편성에서 화성을 위한 배합편성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민족음악, 민족악기, 배합관현악, 전면 배합관현악, 민족관현악, 은하수관현악단,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모란봉악단, 민요풍 노래, 민족성, 현대성, 인민성

〈차 례〉

- I. 들어가며: 북한 김정은체제와 민족음악
- II. 은하수관현악단의 민족악기 편성
- III.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민족악기 편성
- IV. 모란봉악단의 2014년 <신작음악회>
- V. 북한 민족기악 편성의 특성: 민족성, 현대성, 인민성

* 이 글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7326)
**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I. 들어가며: 북한 김정은체제와 민족음악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음악 현상만을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문화예술이 대부분 북한의 정치적 사안들과 맞닿아 있으며, 당의 정책적 요구가 수용된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북한 음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사와 함께 북한 음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1980년대 말부터 김정일의 주도하에 다양한 정치이념들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말에 제시된 ‘조선민족제일주의’나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제기된 ‘유훈통치’, ‘선군정치’, 그리고 1998년의 ‘강성대국건설’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군대가 앞장 서야 한다는 선군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의 북한 문화를 바라보는 남한의 연구자들은 북한의 문화와 예술을 군대문화의 틀, 예를 들어 선군문학, 총대문학, 선군음악정치 등의 패러다임 안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 중 음악정치는 1997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정치이념이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음악정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구현한 정치”이며, 음악예술의 본질적 특성과 음악의 사회, 교양적 역할, 그리고 음악의 감화력에 기초하여 음악이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가장 위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에서 김정일이 선군음악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의 음악적 자질 때문이라고¹⁾ 말하곤 한다. 그러나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그의 아들인 김정은으로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3대 세습체제 하의 북한 음악문화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편 북한 음악을 이해할 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민족성’이다. 민족음악에 대한 강조는 체제 형성기부터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민족음악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음악은 “민족적 형식”과 “현대적 미감”으로 대표된다. 기본적인 틀은 전통문화 속에서 찾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인민들의 현대적 미감에 맞도록 고쳐져야 주체성과 인민성이 겸비된 민족음악이 된다.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건설장 현지지도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되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리라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다시 설계하라고 질책”²⁾했다는 기사를 보더라도 북한만의 특수한 주체성과 민족성은 여전히 사회 통제의 핵심코드로 작용하고 있으며, 김정일이 제시했던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남한과 북한이 반세기 이상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음악 연주 형태 중 김정은 시대 중앙에서 활동하는 음악단체들의 민족음악 연주 양상을 악기편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족성이 겸비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민족악기가 어떤 방식으로 편성되어 연주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민족예술 공연단체인 국립민족예술단³⁾의 연주양상을 살펴보아야 하나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

1) 김두일, 『장군님의 음악정치와 음악성』,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18-24쪽.

2) http://www.ytn.co.kr/_ln/0101_201411011719189130

여 남한에서 이 단체가 주도하는 연주회의 영상물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북한의 민족기악연주양상은 2005년 7월에 있었던⁴⁾ 〈인민배우 정남희 생일 100돐 기념 가야금연주회〉⁵⁾에서 그 편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영상물에 나오는 민족악기의 편성 양상을 보면, 지휘자의 왼편에 소해금이 자리하고 중앙에는 가야금과 같은 지탄악기, 오른편에는 중해금과 대해금, 현악기 뒤편으로 죽판악기로 불리는 저대와 대피리, 그리고 대해금의 왼편에 장고를 배치하였다. 북한의 민족관현악편성은 남한의 국악관현악편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나 중국 연변의 조선민족음악편성과는 일치하고 있다. 즉 2014년 11월에 국립국악원에서 있었던 제1회 북한음악연주회 〈북한의 민족기악〉 연주⁶⁾를 위해 연변에서 방한한 조선민족기악연주자들의 악기배치를 보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왼편에 소해금, 중앙에 양금과 가야금을 두었으며, 오른편에는 대해금 대신 더블베이스와 그 옆의 장구, 그리고 뒷줄에 저대와 단소, 대피리를 두었다.



<자료 1> 정남희 작곡 <평양의 봄> 연주



<자료 2> 중국 연변의 조선민족관현악편성

이렇게 민족음악만을 연주하는 편성의 악단이 아닌 북한 중앙음악단체의 연주 중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민족음악 중 기악의 편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통해 북한의 악기편성의 형태와 편성 원칙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 사용된 북한 중앙음악단체의 연주는 북한에서 전면배합관현악편성을 볼 수 있는 은하수관현악단의 2011년 2월

3) 1947년에 창단되었으며, 봉화예술극장에서 민요, 민족기악, 민족무용, 민족가극, 민속무용조곡 등 민족예술작품을 주로 공연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민족예술 창조집단이다. 단원 수는 480여명이다. 『북한 예술단체총람 2011』,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16-19쪽.)

4)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9000&num=9695>

『데일리NK』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인민배우 정남희 생일 100돐 기념 가야금연주회〉의 개최 날짜는 2005년 7월 20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예술』 2005년 제9호(루게 585)에는 연주회 사진이 44-45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2005년의 북한 문예자료를 소개한 『조선문학예술년감(2006)』에는 “제15차 <<2.16예술상>>개인경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함기찬음악회>>, <<인민배우 정남희 생일 100돐기념 가야금연주회>>가 창작가, 예술인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269쪽)고 하면서 296쪽에 『조선예술』 2005년 제9호에 게재한 연주회 사진을 재수록하였다.

5) <https://www.youtube.com/watch?v=TWDIaOcsE1o>

6) <https://www.youtube.com/watch?v=bNMrP9z7sF4>

과 2012년 3월의 파리공연, 그리고 민족관현악과 부분배합편성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2013년의 4월과 9월 공연,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세습이후 2012년에 창단된 모란봉악단의 2014년 9월 <신작음악회>이다.

II. 은하수관현악단의 민족악기 편성

단체의 ‘은하수’라는 이름이 ‘김정은’을 상징한다는 설이 있는 은하수관현악단은 2009년 5월에 창단된 단체이다. 창단 초에는 양악기 중심의 관현악편성이었으나 이후 전면배합관현악을 기본으로 전자악기와 드럼세트가 포함된 형태를 갖추었다.⁷⁾ 이 악단에서 연주하는 레퍼토리는 대체로 성악곡 위주이며, 한 두 곡의 민요나 민요풍의 노래를 양악기, 민족악기, 배합편성 등으로 연주하였다.

1. 2011년 설명절음악회

2011년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⁸⁾는 2월 2일부터 만수대예술극장에서⁹⁾ 있었다. 이날 연주 목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1년 은하수관현악단 <설명절음악회> 프로그램

형식/장르	곡목	연주자
	애국가	지휘: 리명일
설화		화술: 백승란
합창	우리 민족 제일일세	
	강성부흥아리랑	
혼성2중창	사랑가	지휘: 윤범주 박금희, 최준일
여성독창	아직은 말 못해 멋있는 사람	리설주
색스폰6중주	우리 집사람	리철훈, 송용국, 김형일, 황승철, 리 웅, 김성국
여성3중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로은별, 서은향, 김정희
남성독창과 남성방창	군밤타령	문명삼

7) 『북한 예술단체 총람 2011』,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56-64쪽 참조.

8) <https://www.youtube.com/watch?v=bEhNwU2qP7M>

9) 『로동신문』 2011년 2월 2일, 김정일총비서 은하수 <설명절음악회>를 관람.
『로동신문』 2011년 2월 4일, 은하수 <설명절음악회> 진행.

남성5중창	귀향의 노래 (예술영화 <갈매기>호 청년들	리준일, 장윤성, 배철우, 문명삼, 김유철
여성2중창과 남성방창	보람찬 우리 일터	
여성6중창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우리 사는 마을입니다	모란봉
관현악	양산도	
여성독창	우정의 노래 옥류교 원무곡	서은향
여성기악4중주	준마처녀	정선영, 백현희, 리은주, 김송희
여성4중창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	지휘: 김충일 림은화, 최금주, 한 숙, 강연희
여성6중창	영웅병사와 고향처녀들 군가에 발을 맞추자	림은화, 최금주, 신윤희, 김수향, 한 숙, 강연희
여성독창과 여성방창	못 잊을 나의 길	황은미
혼성2중창	아름다운 생의 자욱 새기여 가자	황은미, 리철우
민족기악과 바안을 위한 관현악	통일무지개	지휘: 리명일 한은성, 김금희, 조옥주 외
합창	위대한 내 나라 전선에서 만나자	

위의 표를 보면 은하수관현악단은 2011년 신년음악회 연주종목을 대부분 성악곡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악회의 초반과 중반 후반에 기악곡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음악회의 악기 편성 방식은 전면배합관현악편성이다. 지휘자의 왼편에는 양악 현악기가 자리하며, 중앙에는 어은금 두 대와 가야금 한 대, 오른편에는 민족악기 중 해금류가 자리하였다. 그리고 양악 현악기 뒤로 금관악기와 민족죽관악기, 전자악기를 배치하였고, 해금류 뒤편에는 팽과리를 놓았다. 그리고 아래의 자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악기를 연주하는 여성 연주자들은 한복을 입고 연주하였다.



<자료 3> 무대 전면 악기 편성



<자료 4> 우측 해금류와 더블베이스



<자료 5> 좌측 상단 저대와 플룻

먼저 색소폰6중주로 연주한 <우리 집사람>은 국제 여성의 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보급



<자료 6> 색소폰6중주

한 윤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의 민요풍의 노래이다. 이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여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과 가정에 차넘치는 룬리세계를 소박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여 나온 시대의 명곡”이며, “12/8박자로 흥취나는 박자형태를 띠고 5음계조식에 기초한 《술대조》의 단순3부분형식”을 갖고, “아름다운 생활속에서 찾게되는 이 부름말을 소재로 생활적인 가사와 민요적색채가 짙은 선률형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¹⁰⁾고 한다. 이 노래를 색소폰6중주곡으로 편곡하여 화성을 넣어 연주하였으나, 실제 연주를 들어 보면 민요스타일의 노래라기보다는 남한의 트롯음악에 가깝다.

공연의 중반에는 관현악 〈양산도〉가 약 3분 정도 연주되었다. 배합관현악의 합주로 시작된 음악은 장새납의 솔로와 현악기군의 선율이 어울리며 유창하게 연주되다가 팽과리의 활기찬 연주와 대비를 이루기도 하는 등 민요 〈양산도〉의 흥겨운 세마치장단과 유창한 선율을 잘 표현하면서 전반적으로 흥겹고 활기찬 연주를 들려주었다.(자료 7-9)



<자료 7> 배합관현악 〈양산도〉의 장새납



<자료 8> 〈양산도〉의 가야금과 어은금



<자료 9> 배합관현악 〈양산도〉의 팽과리

음악회의 후반부에 연주된 민족기악과 바얀을 위한 관현악 〈통일무지개〉는 가요 〈통일무지개〉의 배합중주 형상으로, 가야금, 고음, 중음, 저음 저대, 바얀,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배합관현악으로 구성되어 연주하였다. 이 연주에 사용된 바얀은 러시아식의 아코디언으로 북한의 배합관현악에서 “민족적인 음색을 받쳐주거나 독특한 제3의 복합음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바얀이나 손풍금, 즉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민족적인 음색과 기교, 즉 “부드럽고 은은하면서도 맑고 처량한” 음색이나 “끝소리”로 불리는 흘러내리는 음, 그리고 요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것을 요구¹¹⁾하고 있다. 이 곡의 연주속도가 빠른 탓에 바얀의 요성은 들을 수

10) 양정남, 『뜨겁고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시대의 명곡: 가요 《우리 집사람》을 들으며』, 『조선예술』2010년 제7호(루계 643호), (문학예술출판사, 2010), 56쪽.

없었으나 ‘제3의 복합음색’을 만들어 내는 데는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10> 민족기악과 바얀 1



<자료 11> 민족기악과 바얀 2



<자료 12> 바얀연주

2. 2012년 프랑스 파리 연주회

은하수관현악단은 2012년 3월 14일 프랑스 파리공연¹²⁾을 가졌다. 연주회의 1부에서는 은하수관현악단 단독으로 관현악 〈그네뛰는 처녀〉, 민족기악 2중주 〈비날론삼천리〉, 관현악 〈매혹〉,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 무반주 바이올린독주곡 〈닐리리아〉, 관현악 〈신아우〉를 연주하였으며, 2부에서는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브람스협주곡 9번 전곡과 관현악 〈아리랑〉, 그리고 〈카르멘조곡〉을 연주¹³⁾하는 등 성악곡 위주로 연주했던 북한에서와는 달리 모두 기악곡으로 구성하였다. 악기 편성을 보면, 1부에서는 앞의 두 곡을 연주할 때 전면배합관현악편성을 취하되 드럼세트나 전자악기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관현악 〈매혹〉 부터는 서양 오케스트라 편성을 하되 1부 마지막의 관현악 〈신아우〉와 2부의 〈아리랑〉에서는 죽관악기와 쟁과리를 넣은 부분배합관현악편성을 취하였다.

북한에서 관현악 〈그네뛰는 처녀〉는 세 가지 버전이 확인된다. 즉 원곡이라고 할 수 있는 1956년에 창작된 최로사 작사, 김준도 작곡의 민요풍의 노래와 이 노래를 바탕으로 1970년에 김윤봉에 의해 편곡된 관현악곡¹⁴⁾, 그리고 은하수관현악단이 2011년 당창건기념 〈10월음악회 -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에서 새롭게 편곡하여 연주한 곡이 그것이다. 김정일은 2011년 당창건기념연주회를 평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음악회들중에서 제일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관현악 《그네뛰는 처녀》는 편곡이 잘되고 형상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우리 식의 배합관현악의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특별감사를 주시었다¹⁵⁾”고 한다. 참고로 『DVD 문학

11) 박은정, 『바얀연주자가 창조하는 음색은 민족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조선예술』2013년 제10호(루게 682호), (문학예술출판사, 2013), 50쪽.

12) <https://www.youtube.com/watch?v=wH2XhR7TBHk&list=PL8E62ABFFB97E7D91>

13) 『로동신문』 2012년 3월 16일자. 〈은하수관현악단 빠리에서 대성황리에 공연〉

14) 사회과학원출판사, 『DVD 문학예술대사전』, (2006).

15) 림광호, 『한해를 빛나게 장식한 선군혁명음악예술』, 『조선예술』2011년 제12호(루게 660호), (문학예술출판사, 2011), 20쪽.

『예술대사전』에서 음원으로만 확인되는 1970년대 창작된 <그네뛰는 처녀>는 민족죽관악기와 쟁과리가 서양 오케스트라에 더해진 부분배합관현악편성의 곡으로 들리는데 비해 은하수관현악단이 새롭게 편곡한 <그네뛰는 처녀>는 전면배합관현악편성의 곡이다. 풍부한 현악기 선율과 민족죽관악기와의 대비, 그리고 쟁과리와 장구가 잘 어우러진 연주였다. 3부분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음악 중간의 변주부분이 짧다.



<자료 13> <그네뛰는 처녀> 배합관현악



<자료 14> <그네뛰는 처녀> 장구

은하수관현악단이 편곡한 민족기악2중주 <비날론삼천리>는 2010년 <9월음악회>에서 처음 선보인 후 2010년 <10월음악회>와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에 이어 파리에서 연주하였다. 중주악기는 가야금과 소해금이며, 연주자는 <2.16예술상> 수상자인 조옥주와 남은화이다. 민족기악2중주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민족기악2중주를 위한 관현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곡 역시 3부분 형식을 취한다. 관현악 연주에 이어 소해금의 활대 소리가 장내를 가르면 21현 가야금이 그 뒤를 이어 소리를 낸 뒤 <비날론삼천리>의 1절의 주선율을 가야금과 소해금이 번갈아가며 연주한다. 이어 관현악과 함께 2절 연주를 한 후 점점 빨라지면서 변주부분으로 들어간다. 빠른 가야금연주와 느린 활대의 소해금연주가 대비를 이루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속도를 느리게 하여 원곡의 정서를 살리고 있다.



<자료 15> 민족기악2중주 1



<자료 16> 민족기악2중주 2



<자료 17> 비날론삼천리 소해금

지금까지 2009년에 창단된 은하수관현악단의 2011년 <설명절음악회>와 2012년 프랑스 파리 연주를 살펴보았다. 2011년 <설명절음악회>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연주회 중에서도 민요나 민요풍의

노래가 많이 편성되어 민족적인 정서가 가득한 무대였다. 이 중에서 민족음악을 기악으로만 연주한 것은 세 곡으로, 민요풍의 노래를 색소폰과 같은 금관악기를 위한 음악으로 편곡하여 연주하거나 화성을 연주할 수 있는 바얀과 함께 민족 죽관악기와 가야금을 배합한 편성으로 구성하였으며, 민요 〈양산도〉를 전면배합관현악으로 편곡하여 연주하였다. 이 외에 성악연주는 모두 배합관현악이 반주하였으며, 이 반주에 맞추어 양악 성악가와 민성가수의 연주가 있었다. 한편 전면배합관현악은 잘 알려져 있듯이 양악기와 민족악기를 1:1의 수준으로 배치하는 형태이다. 이 연주회에서는 지휘자의 왼쪽에 서양현악기를, 지휘자의 앞에는 가야금과 어은금, 지휘자의 오른쪽에는 소해금과 중해금을 놓았다. 그리고 현악기의 뒤편으로 금관악기와 민족죽관악기, 전자기타, 더블베이스 등이 자리하였으며, 무대 뒤쪽에 피아노와 장구, 드럼세트, 타악기, 팽과리를 배치하였다.

2012년 프랑스 연주에서는 민요풍의 노래 〈그네뛰는 처녀〉와 〈비날론삼천리〉를 부분배합관현악으로 편성하여 연주였고, 이중 〈비날론삼천리〉는 민족기악2중주를 위한 관현악이었다. 이날 연주의 악기배치는 북한에서의 것과 약간 다르다. 즉, 기본적인 오케스트라 편성을 갖되 중앙에 어은금과 소해금을 배치하였으며, 민족죽관악기의 수도 적었다. 그리고 드럼세트와 전자기타는 편성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악기를 배치하면서도 민족음악적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주에서는 서구유럽을 방문한 동양 오케스트라가 연주레퍼토리를 자국의 창작곡으로 채워놓거나 솔로 연주가가 앵콜곡으로 민요변주곡을 연주함으로써 북한의 음악이 서구 유럽음악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음악이라는 긍지로 가득한 연주회를 만들어 놓았다.

Ⅲ.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민족악기 편성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은 사회안전성협주단, 혹은 인민보안성협주단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0에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과 무용, 화술이 혼재된 종합예술단체이다. 1947년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악단으로 출발하였으며 북한의 경찰기관인 인민보안부 인민내무군 정치국 산하 공연기관으로 봉화예술극장을 전용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이름으로 진행된 첫 번째 공연인 2010년 4월 17일의 연주에는 여성중창 〈병사들은 노래하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여성2중창 〈해돋이 순간〉, 여성기타5명창 〈이 강산 하도 좋아〉, 남성독창과 방창 〈사랑의 봄빛〉, 여성독창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내 운명 지켜 준 어머니 당이여〉, 어은금독주 〈가마마차 달린다〉, 이야기와 여성독창 〈여기는 천리마 내 조국입니다〉, 손풍금3중주 〈축원의 노래〉, 남성기타4명창 〈3대사랑가〉, 혼성중창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등이 연주되었다.¹⁶⁾

이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이 2013년에 진행한 두 번의 공연에서 민족기악형상과 관련한 내용

16) 『북한 예술단체 총람 2011』, (서울: 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11), 75-79쪽.

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2013년 4월 태양절 공연

2013년 4월 태양절 즈음에 있었던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연주회의 영상¹⁷⁾은 김정은이 직접 참여한 공연을 실황 녹화한 영상으로 영상의 첫 화면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공연>임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연 종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태양절 공연

편성/장르	곡목	연주자
설화와 합창	영원한 그 미소	화술: 김혜경
여성독창과 합창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한은정
남성2중창과 합창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남원철, 황명성
무용	삼지연못가에서	김은희외 9명
남성독창	아름다운 고향	리동수
여성3중창	새봄을 노래하네	권미화, 리봄순, 한은정
어은금과 손풍금2중주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	류은혜, 리남신
트럼베트와 남성독창	어버이품이어	전수련, 배성권
여성기타병창	초소의 까치소리	리경 외 4명
하모니카독주	병사들이 영웅이 되자	림명산
하모니카3병창	도시처녀 시집와요	오은향, 허미양, 박혜성
남성고음3중창	당의 품에 안겨 사는 인민의 행복	리영교, 림영철, 배성권
고음저대와 하모니카중주	모란봉 날리리아	박광혁, 리광 외 5명
어은금병창과 소합창	운명도 미래도 맡긴분	윤금란 외 6명
여성독창과 소합창	단숨에	함금주
무용	행복의 니나니 난노	홍옥영 외 11명
색스폰과 남성독창	사랑에 대한 생각	김용재, 리충심
여성독창	믿어다오 조국아	박금향
남성기타4병창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박금중 외 3명
여성독창과 방창	승리자들	김희옥
설화시	원수님 계신다	김혁 외 3명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오케스트라 편성

17) <https://www.youtube.com/watch?v=fgq80wg3r0o>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 연주회는 음악과 화술, 무용이 함께 구성된 음악무용종합공연의 형태를 띤다. 이 공연의 기본 악기편성은 일반적인 오케스트라 편성이었으며 무대 뒤편으로 합창대를 두었다. 그리고 공연 중간에 세 종류의 소규모 편성이 ‘흐름식’으로 무대에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앞의 둘에 민족악기가 편성되어 있다. 즉 이 공연에서 볼 수 있는 민족기악은 어은금과 손퐁금 2중주의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 하모니카 독주의 〈병사들이 영웅이 되자〉, 그리고 고음저대와 하모니카중주 〈모란봉 날리리아〉이다.

공연 초반의 무용 다음에 흐름식으로 무대에 들어온 악대는 민족악기와 아코디언, 드럼세트가 혼합된 민족악기 위주의 배합편성악대이다. 무대 앞쪽인 하단에는 옥류금, 가야금, 양금, 대해금을 배치하고, 무대 뒤쪽인 상단에는 저대류 3, 피리류 3, 그리고 아코디언과 장구, 타악기 일색과 드럼세트를 배치하였다. 이 편성으로 연주한 음악은 성악곡 두 곡이며, 죽관악기들의 꺾어서 흘러내리는 주법과 옥류금의 아르페지오연주가 강조되어 나타났다.



<자료 18>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기본 편성



<자료 19> 흐름식 악대 1. 민족악기 위주 편성

손퐁금과 어은금의 2중주로 연주한 〈강산에 만발한 꽃송이〉는 1961년에 창작된 서정가요이다. 여성 연주자가 연주하는 맑은 음색의 어은금 선율과 그 사이의 빈 여백들을 화성으로 채워 주는 남성 연주자의 손퐁금 연주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비는 악기나 악기의 음색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성별에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20> 어은금과 손퐁금 2중주

다음에 역시 흐름식으로 들어온 악대는 무대 왼쪽에 피아노 아코디언을 놓고 아래쪽에 어은금 3, 위쪽에 전기기타 둘과 타악기, 그리고 드럼세트를 배치하였다. 이렇게 밴드악대와 어은금이 혼합된 편성에서는 어은금의 대표적인 연주수법인 트레몰로가 도드라진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하모니카독주 〈병사들이 영웅이 되자〉를 제외하면 이 두 악대는 모두 성악곡을 반주하였다. 하모니카독주는 두 번째 악대의 악기와 함께 연주하였는데 이 역시 하모니카의 음색과 민족악기인 어은금의 소리가 대비를 이루었다.



<자료 21> 흐름식 악대 2. 배합편성



<자료 22> 하모니카독주



<자료 23> 저대와 하모니카중주

다음으로 고음저대와 하모니카중주의 〈모란봉 날리리아〉는 2008년에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이나 이 역시 남한의 트롯음악에 가깝다. 이 연주에서는 음역대를 달리하는 하모니카 6대와 함께 고음저대를 편성하였다. 연주영상을 보면 고음저대가 비록 황취의 악기이기는 하나 그 음색이 단소나 소금에 가까워 마치 전통음악의 생소병주와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세 연주 모두 민족악기와 화성을 연주하는 서양악기를 배치하여 음색의 대비와 함께 화성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2. 2013년 9월 공화국창건 기념 공연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2013년 9월 9일 ‘공화국창건 65돐 경축공연’ 〈선군의 나의 조국〉공연(18)의 연주목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화국창건 65돐 기념공연 <선군의 나의 조국>

편성/장르	곡목	연주자
혼성합창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남성독창과 합창	선군의 나의 조국	배성권
혼성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남성2중창과 합창	승리자들	남원철 황명성
무용	승리의 행진	
양금과 여성독창	선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	양금: 황련아 독창: 리봄순
어은금병창	감사의 노래	
여성3중창	먼저 찾아요	권미아 리봄순 한은정
바인2중주	축배를 들자	백성혁 송경업

18) https://www.youtube.com/watch?v=_1NHRX4AAA0

혼성2중창	우리 마을 우리 초소	리동수 리정심
손풍금과 색스폰 3중주	멋 있는 사람	리남신 임향란 외 2명
여성기타병창	보람찬 병사시절	리효심 외 5명
남성고음3중창	그보다 정다운 품 나는 몰라라	리영교 림영철 배성권
통소와 하모니카중주	정말 좋은 세상이야	김경석 장혁 외 5명
혼성4중창과 소합창	공격전이다	장성혁 박철옥 리은숙 림영철
여성독창과 소합창	래일을 믿으라	함금주
남성기타4병창	오늘도 그날처럼	오영수 전창민 박태혁 박금중
무용	내가 지켜선 초소	김은희 외 6명
여성독창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김희옥
남성독창	대렬훈련나날에 병사는 자랐네	리동수
남성독창	뿌리가 되자	김용재
전자드럼을 위한 경음악과 노래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한순정 정옥주 외 5명
설화시	선군의 나의 조국	주진아 외 2명
혼성중창과 합창	인민은 일편단심	박금향 외 5명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선군의 나의 조국>은 4월의 공연과 같이 음악무용종합공연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악기 편성은 전면배합관현악, 민족악기 위주의 배합관현악편성, 배합편성 등 다양한 편성을 보여주었다.

먼저 이 연주회의 기본 편성은 4월의 연주와는 달리 전면배합관현악편성이었으며, 모두 성악곡의 반주를 진행하였다.(자료 26-29) 그러나 은하수관현악단의 전면배합관현악 배치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즉, 무대 왼편 뒤쪽으로 어은금과 죽관악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무대 오른편에는 소해금과 중해금, 더블베이스, 팀파니, 그리고 전자기타가 편성되어 있다. 즉, 어은금의 위치가 중앙과 왼쪽 뒤편으로 다른 셈이며 가야금을 두지 않은 점 역시 다르다.



<자료 24> 정면



<자료 25> 우측



<자료 26> 좌측 뒤편의 어은금

이날 연주도 4월 공연에서처럼 민족관현악편성과 어은금이 포함된 배합편성이 연주에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민족관현악편성의 악단은 무용 <승리의 행진> 다음에 ‘흐름식’으로 들어왔다. 악기는

앞면 왼쪽에 소해금 4대, 옥류금, 양금, 가야금, 중해금 2대, 대해금 1대를 놓았고, 뒤편에 저대류 3, 단소1, 대피리 1, 중앙에 아코디언과 장구, 그리고 오른쪽에 타악기와 드럼세트를 놓았다.



<자료 27> 민족악기 위주의 배합편성



<자료 28> 원편의 소해금과 죽관악기

4월의 민족관현악에 드럼과 아코디언이 들어간 편성과 비교하여 9월의 것은 편성방식이 약간 다르다. 즉, 무대 앞에 옥류금과 양금, 가야금을 놓고 뒤편에 민족죽관악기 6개를 배치하였던 것에 비해 9월의 연주에서는 옥류금과 양금, 가야금의 양 옆으로 해금류의 악기를 두었으며, 죽관악기의 수를 하나 덜었다.

이러한 편성으로 연주된 양금과 여성독창 <선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은 양금만의 반주가 아닌 양금의 연주가 돋보이는 연주로 편곡한 상태에서 배합관현악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 두 번째 노래인 어은금 병창 <감사의 노래>는 영상자료에서 연주영상이 보이지 않은 채 7명의 어은금 연주자가 무대를 나가는 모습¹⁹⁾만 보인다. 그러나 4월의 연주에서 그 상황을 추측해보면, 표주박 모양의 어은금을 들고 하와이안기타처럼 잡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어은금병창은 뒤편의 합창단 대신 민족관현악 연주가 반쳐진 연주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진 여성3중창 <먼저 찾아요>는 성악의 연주와 함께 가야금, 장구, 팽과리 등의 중간 반주가 돋보이는 편곡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29> 4월 연주의 어은금병창



<자료 30> <먼저 찾아요>의 가야금 간주



<자료 31> <먼저 찾아요>의 장구, 팽과리 간주

19) 『로동신문』 2013년 9월 12일자 4면 <공화국창건 65돐경축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공연>에 “서곡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독창과 합창 《선군의 나의 조국아》,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양금과 여성독창 《선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 어은금병창 《감사의 노래》, 남성고음3중창 《그보다 정다운 품 나는 몰라라》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는 기사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연주 종목에 추가하였으며, 영상물을 통해 어은금병창 <감사의 노래>가 여성3중창 <먼저 찾아요> 앞에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얀 연주 다음에 흐름식으로 들어온 악대의 편성은 4월 공연의 것과 동일하다. 즉, 어은금 4대와 피아노, 아코디언, 전자기타와 드럼세트의 편성으로 합주와 손풍금과 색소폰 3중주 〈멋있는 사람〉이 연주되었다. 이 연주에서도 트레몰로로 연주하는 어은금의 소리가 잘 배합되어 있었다.



<자료 32> 손풍금과 색소폰3중주 1



<자료 33> 손풍금과 색소폰3중주 2

무대에서 이 편성이 빠져 나간 다음에 연주된 통소와 하모니카중주 〈정말 좋은 세상이야〉는 하모니카 6중주와 민족악기 통소의 중주 형태이며, 이것은 4월 연주의 고음저대와 하모니카중주로 편성된 음악과 상통한다. 이 연주에서 보여준 통소는 개량되지 않은 전통의 모습을 지닌 악기였다. 그리고 하모니카 6개가 연주하는 바이브레이션은 마치 피리나 단소의 농음과 비슷한 연주법을 보여주었다. 통소의 질박한 소리가 맑고 고운 음색을 갖는 하모니카의 화성반주에 어우러진 연주였다.



<자료 34> 통소와 하모니카합주



<자료 35> 통소연주

이 장에서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민족악기 편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악단의 기본 편성은 서양오케스트라편성과 전면배합관현악편성을 보였다. 그러나 협주단의 전면배합관현악은 은하수관현악단의 그것과 악기 위치가 조금 달랐다. 이 악단은 공연 중간에 세 번의 흐름식 악대가 들어와 연주하는데 첫 번째는 민족관현악기에 드럼과 아코디언이 배합된 편성이며, 두 번째는 어은금이 배합된 밴드스타일의 편성,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악기편성이어서 논외로 두었다. 민족관현악에 드럼과 아코디언이 들어있는 편성은 4월과 9월이 약간 다르다. 4월의 것에는 해금류가 없었던 것에 비해 9월의 것은 소해금 4대와 중해금 2, 그리고 대해금 하나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편성은 아코디언이나 드럼세트를 제한다면 북한의 민족관현악과 중국 연변의 조선민족관현악편성과 같으며, 대체

로 성악곡의 반주를 담당하였다. 밴드 악기와 어은금이 배합된 편성에서는 어은금의 트레몰로 연주가 주의를 끌었다. 이외에 고음저대와 하모니카6중주, 통소와 하모니카6중주와 같은 독특한 편성이 있었는데, 생황과 비슷한 음색을 갖으면서 화성 연주가 가능한 하모니카나 손풍금과 같은 악기와 민족악기를 결합하여 민족적인 흥취를 내면서도 화성을 넣은 연주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모란봉악단의 2014년 <신작음악회>

2012년 7월 김정은시대에 창단된 모란봉악단은 1980년대 김정일이 창단한 보천보전자악단과는 차별성을 갖는 음악단체이다. 모란봉악단은 연주에서 대체로 전자악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보천보전자악단과 같다. 그러나 보천보전자악단에서는 일렉톤과 같은 건반 위주의 전자악기를 남성 연주자가 담당하고 여성 연주자는 노래만 불렀던 것에 비해 모란봉악단은 현악 위주의 전자악기로 구성하며 모두 여성 연주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이 악단의 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건반, 색소폰, 피아노,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를 연주하는 11명의 연주자와 다수의 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악기로 주로 경음악과 성악곡을 연주하며, 3대세습자인 김정은의 의지를 반영한 악단의 민족음악연주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김정은의 민족음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4년 9월, 이 악단은 <신작음악회>²⁰⁾라는 일종의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이날 48분 정도의 영상 속에 소개된 총 11곡의 노래 중 민요풍 노래는 두 곡이다.

<표 4>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2014.09.03)

	편성/장르	곡목	출연자	비고
1	여성3중창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김설미, 리옥화, 라유미	
2	여성3중창	그리움의 하얀 쪽배	박미경, 정수향, 김유경	
3	여성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	공훈배우 라유미	
4	여성중창	만경대혁명학원교가		
5	여성독창	그날의 15분	공훈배우 리옥화	
6	경음악편곡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조국찬가		
7	여성독창과 방창	고백	공훈배우 라유미	
8	여성독창과 방창	세월이야 가보라지	공훈배우 리옥화	민요풍노래 32: 42-36: 18

20) <https://www.youtube.com/watch?v=PMn80NWp89E>

9	여성독창과 방창	철령아래 사과바다	김설미	민요풍노래 36: 18~40: 07
10	여성중창	근위부대자랑가		
11	여성중창	승리는 대를 이어		

위의 표에서 여성독창으로 부른 〈세월이야 가보라지〉와 〈철령아래 사과바다〉라는 두 곡은 2014년 상반기에 창작된 〈바다만풍가〉²¹⁾와 함께 모란봉악단이 창작한 민요풍의 노래로 카운트되었다. 이 음악회에서 연주된 두 곡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너무나 긍정적이다.

특히 음악회무대에 오른 민요작품들은 내용에서 우리 당정책이 반영되고 형식에서 민족성이 구현된 것으로 하여 당정책이 살아숨쉬고 민족적정서와 흥취가 넘쳐나는 우리 시대의 민요명작으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중략)…

모란봉악단이 펼친 특색있는 민요무대는 우리 선물이 제일이고 우리 장단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데 대한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천하고 당의 손길아래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우리의 생활을 민족적정서가 넘쳐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²²⁾

서양식 전자악기의 경쾌한 음악과 화려한 율동이 주를 이루었던 모란봉악단이 2014년에 창작하여 형상한 민요풍 노래는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족음악을 장려하려는 당의 의도가 잘 드러난 음악이라는 것이다.

먼저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연주는 민족악기 없이 전자악기로만 연주되었으며, 모든 악기들이 양산도장단, 즉 세마치장단의 느낌을 잘 살려 연주하였다. 노래를 부른 리옥화 역시 대중가요 창법으로 노래부르기는 하였으나 ‘굴림소리’나 ‘꿇음소리’와 같은 민요창법을 사용하여 민족적인 정서를 안겨주었다.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겨낸 노년 세대에 대한 자축의 의미를 담고 있다.

21) <https://www.youtube.com/watch?v=xK-yweuswqc>

〈바다만풍가〉는 2014년 5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에서 처음 연주된 민요풍의 노래이며, 흥겨운 굿거리장단의 음악이다.

22) 리은성, 『(관평)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진군길에 올려져진 장쾌한 명작포성: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보고』, 『조선예술』2014년 제11호(루게 695호), (문학예술출판사, 2014), 21쪽.



<자료 36> <세월이야 가보라지> 1



<자료 37> <세월이야 가보라지> 2

이 노래에 대한 북한의 관평을 보면, “이번에 새롭게 창작형상하여 음악회무대에 내놓은 민요 《세월이야 가보라지》도 9/8박자의 건드러진 장단에 맞추어 여성중음가수의 독창과 방창으로 울려 퍼져 날을 따라 커만 가는 당복, 선군복속에 누구나 젊음에 넘쳐있는 조국의 모습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흰 종이에 단뿔으로 그려내듯 생동하게 보여주었다²³⁾”면서 노인세대의 흥청거림을 표현하였다.

<세월이야 가보라지>에 이어 연주된 <철렁아래 사과나무>는 모란봉악단의 민성가수 김설미가 불렀다. 이 노래의 가사는 4.4조에 4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이룩해가고 있는 생활상의 풍요로움을 상징한 당정책가요라고 할 수 있다. 전통악기인 쟁과리의 안땅장단 연주로 시작된 <철렁아래 사과나무>는 굴림소리와 요성이 인상적인 곡이다. “노래를 형상한 독창가수(김설미)는 원곡이 담고있는 정서적요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고 세련된 연주기교를 발휘하였다. 이 가수의 노래형상에서 특이한 점은 민요풍의 노래에만 있는 독특한 기교, 다시말하여 악보에 그려진 음을 골격으로 하면서 박자가 2박 도는 4박자길이로 연장되는 대목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분음을 섬세하고 재치있는 굴림을 써서 원곡의 정서를 높은 수준에서 형상완성시켜²⁴⁾” 주었다며 김설미의 민요창법을 높이 평가하였다.



<자료 38> 전자악기편성



<자료 39> 김설미



<자료 40> 쟁과리

23) 리은성, 앞의 글, 21쪽.

24) 리관수, 「당정책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 흥잡을데 없는 시대의 걸작: 가요 《철렁아래 사과나무》를 놓고, 『조선예술』2014년 제11호(루게 695호), (문학예술출판사, 2014), 30-31쪽.

모란봉악단이 형상화한 민요풍의 노래 두 곡의 악기편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현악기 위주의 전자악기 속에 전통악기인 썩과리 하나를 더 넣은 형태이며, 전통장단의 사용과 함께 음악에서 민족적 정서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년세대를 겨냥한 노래에서는 평범한 대중가요 창법으로,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래에서는 전형적인 민성창법으로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날 연주에서 불렀던 노래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보면 “우리 인민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널리 불리워진 민요 《바다만풍가》와 선군절에 즈음하여 창작된것으로 하여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녀성독창과 방창으로 울려퍼지자 무대와 객석은 민족적정서와 흥취로 한껏 달아올랐다. 관람자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으로 사회주의 대가정에 반발하는 바다향기, 과일향기를 민족적선물의 정서속에서 온몸으로 받아안았다²⁵⁾”면서 모란봉악단의 민요풍 노래 중 젊은 분위기와 활기가 느껴지는 〈바다만풍가〉와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V. 북한 민족악기 편성의 특성: 민족성, 현대성, 인민성

문화는 사회적 산물이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이라고 했을 때, 동시대 사회문화의 한 형태인 음악은 미학의 보편적인 언어와는 다른 소리와 울림으로 시대의 의지와 의식을 반영한다. 또한 의지와 의식은 세대를 넘는 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정서로 대물림된다. 2000년대 북한의 문예담론은 주체사실주의 위에 조선민족제일주의,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음악정치 등이 층층이 쌓여 있는 양상이며, 이들의 중심에는 김정일이 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갑작스러운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였으며, 이 시기에 북한의 중앙 음악 단체들의 민족악기 편성 양상을 연주 영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은하수관현악단은 양악기와 민족악기의 비율을 1: 1로 설정한 전면배합관현악편성으로 연주하였으며, 양악기와의 민족음악연주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연주기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역시 전면배합관현악편성이 보이는 하였으나 은하수관현악단의 것과 민족악기의 위치가 달랐다.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공연에서는 이 외에 소규모의 민족관현악편성과 배합편성이 있었는데 모두 아코디언을 넣어 화성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민족죽관악기와 하모니카를 결합하여 화성이 표현되면서도 민족적인 흥취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음악 악단인 모란봉악단이 연주하는 민요풍의 노래에서 전자악기로 형상하는 민요의 음조도 그렇지만 전자악기에 썩과리를 편성하여 민족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다.

『음악예술론』에는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하는 것은 ‘주체적’인 악기편성의 중요한 원칙이

25) 리은성, 앞의 글, 21쪽.

라고 명시하였다. 악기편성은 음악에서 민족적 색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하는 것은 민족악기의 역할을 더욱 높여 민족음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서양악기를 민족음악발전에 복종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배합을 위해서 민족악기의 개량은 선결 과제였다. 이에 민족악기의 고유한 음색을 보존하면서도 형태와 모양, 재질을 바꿔 밝은 음색과 더 큰 음량, 현대적 주법을 연주할 수 있도록 민족악기를 개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량된 민족악기와 서양악기의 배합편성에서는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고 민족악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배합편성에서 민족적이며 현대적인 새로운 소리를 찾아내기 위해 배합의 균형을 잘 맞출 것이 강조되었다.²⁶⁾

그러나 악단 연주에서 배합편성을 하는 이유는 화성 때문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민족관현악편성에서도 화성연주를 위해 아코디언을 편성하고, 중주의 경우도 민족악기와 함께 화성연주를 하는 아코디언과 하모니카를 함께 편성하여 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에서 “화성은 그 고유한 음향적인 색깔로 하여 민족적인 특성을 살리기도 하며 현대적인 미감을 둔구기도²⁷⁾” 하기 때문에 “화성이나 리듬과 같은 다른 수단이 선률의 형상과 성격을 적극 안받침하고 풍부히 하여주면 선률이 더 잘 살아나고 음악에서 선률의 기본적이며 주도적인 지위와 역할도 훌륭히 보장될수 있다²⁸⁾”고 명시할 정도로 화성은 현대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에 더하여 손풍금이라 불리는 아코디언이나 바얀, 하모니카 등은 군중예술소조활동에 많이 사용되는 악기로 이동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쉽게 이들 악기의 반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인민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 민족의 강조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공격을 막으면서 자국민들의 단결을 촉발시켜야 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김정은시대 대표악단이자 전자음악을 연주하는 모란봉악단이 기존의 연주 경향에서 벗어나 민요풍노래를 창작, 발표하거나 전자악기에 썰과리를 편성하여 민족음악의 정서를 살려 놓은 것을 보면, 외부세계로부터 인민통제를 강화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적 형식과 현대적 미감, 그리고 인민성은 이렇게 중앙 음악단체의 악기편성에서도 구현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편성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26) 김정일,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84-87쪽.

27) 앞의 책, 97쪽.

28) 앞의 책, 54쪽.

[참고문헌]

『로동신문』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9000&num=9695>YTN, http://www.ytn.co.kr/_ln/0101_201411011719189130

김두일, 『장군님의 음악정치와 음악성』,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김정일,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편, 『통일문화사대계 1: 1990~1999 북한 문예비평자료·해제집』,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12.

사회과학출판사, 『DVD 문학예술대사전』, 2006.

『조선문학예술년감: 주체95(2006)』,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9.

『조선예술』 2005년 제9호(루계 585), 문학예술출판사, 200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북한 예술단체총람 2011』,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리관수, 「당정책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 흡잡을데 없는 시대의 걸작: 가요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놓고」, 『조선예술』 2014년 제11호(루계 695호), 문학예술출판사, 2014.

리은성, 「(관평)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진군길에 올려퍼진 장쾌한 명작포성: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보고」, 『조선예술』 2014년 제11호(루계 695호), 문학예술출판사, 2014.

림광호, 「한해를 빛나게 장식한 선군혁명음악예술」, 『조선예술』 2011년 제12호(루계 660호), 문학예술출판사, 2011.

박은정, 「비안연주가 창조하는 음색은 민족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조선예술』 2013년 제10호(루계 682호), 문학예술출판사, 2013.

양정남, 「뜨겁고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시대의 명곡: 가요 《우리 집사람》을 들으며」, 『조선예술』 2010년 제7호(루계 643호), 문학예술출판사, 2010.

<https://www.youtube.com/watch?v=TWDIaOcsE1o><https://www.youtube.com/watch?v=bNMrP9z7sF4><https://www.youtube.com/watch?v=PMn80NWp89E><https://www.youtube.com/watch?v=PMn80NWp89E><https://www.youtube.com/watch?v=bEhNwU2qP7M><https://www.youtube.com/watch?v=wH2XhR7TBHk&list=PL8E62ABFFB97E7D91><https://www.youtube.com/watch?v=fgq80wg3r0o>https://www.youtube.com/watch?v=_1NHRX4AAA0<https://www.youtube.com/watch?v=xK-yweuswqc>

The aspect of orchestrating the traditional instruments in North Korean Capital music organizations in 2010s

Bae, Inghyo*

This article has a purpose to look into the orchestration of the national music instruments in the music organizations that are performing in the capital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have been divided more than 50 years, and these organizations we are targeting are showing the original form of music of North Korea. To do this research, we examined the Paris concert of *Eunhasu*(Milky-way) Orchestra in February 2011 and March 2012, the concert of the *Chosun* People's Military Ensemble in April and September 2013, which show the ethnic orchestra and a part-mixed organizing, and lastly the <New Music Concert> of the *Moranbong* band in September 2014. The *Moranbong* band was established after the succession of *Kim Jongeun* in 2012.

Eunhasu Orchestra played with the entire-mixed orchestration, and showed a performance technique that makes the western music instruments in the traditional music sounds not at all awkward. Also *Chosun* People's Military Ensemble displayed the entire-mixed orchestration, but different from that of *Eunhasu* Orchestra in the positions of the traditional music instruments. Besides this mix, at the concert of *Chosun* People's Military Ensemble, there were small traditional orchestration and the part-mixed orchestration. Both of them expressed the harmony with accordion, and combined the traditional bamboo musical instruments with harmonica presenting the harmony and the ethnic taste. Lastly, the electrical music band, *Moranbong* band is presenting the ethnic, traditional sentiment through the folk song scale in the songs, which are also *miny*(folksong)-style song with the electrical instruments, and also presenting through adding the *kwaenggwari* with other electrical music instruments.

In North Korea, the music groups are pursuing the mixed-orchestration to achieve the traditional form, the modern sense of beauty, and the popularity at the same time, but it can be told as a way of presenting the harmony in traditional music.

The traditional form, modern sense of beauty, and the popularity seem as though they will be pursuing the mixed orchestration continuously for the harmony, engaging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olitical

* Research Professor, KCTI, Dankook University

intentions.

[key words] traditional music; traditional music instrument; mixed orchestration; entire-mixed orchestration; traditional orchestra; *Eunhasu*(Milky-way) Orchestra; *Chosun* People's Military Ensemble; *Moranbong* Band; *minyŏ*(folksong)-style song; national character; modernity; popularity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5년 5월 10일	2015년 5월 22~6월 15일	2015년 6월 18일